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211270 (KQ) IT 하드웨어

AP 위성

AP 위성, 우주 양산 사이클의 시작점 진입

- 위성 양산, 숫자가 터진다
- 투라야(Thuraya) 독점 깨고 인마셋(Inmarsat)까지
- 컨텍 품에 들어간 우주 수직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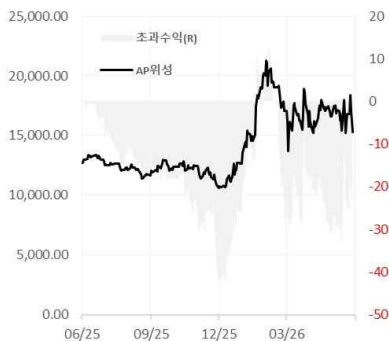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5/29)	15,260 원
시가총액	230.2 십억
자본금	7.5 십억
발행주식수	15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9.6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22,400 원
52 주 최저가	10,5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73 억원
외국인 지분율	1.8 %

주가



위성 양산, 숫자가 터진다

동사 KPS 송수신부와 AIS 탑재체는 개발비 선투입 구간을 지나 반복 납품 단계로 진입한다. 위성사업부 매출은 2025년 171 억원에서 2026년 220~250 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 수주가 아니라 제조 레버리지와 마진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책 우주 양산 사이클 진입이며, 실적 재평가의 핵심 촉매로 작용된다.

투라야(Thuraya) 독점 깨고 인마셋(Inmarsat)까지

AP 위성의 통신사업은 20 년 이상 Thuraya 항 위성휴대폰 공급으로 유지된 락인형 캐시카우이다. 여기에 Inmarsat 146 억원 ~ 148 억원 계약이 더해지며 단일 고객 리스크가 처음 완화됐다. 차세대 MSS 단말 교체 수요가 붙으면 통신사업부 매출 정상화와 고객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다.

컨텍 품에 들어간 우주 수직계열화

컨텍은 AP 위성 지분 24.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지상국-데이터 서비스 중심 다운스트림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 AP 위성은 위성 본체-탑재체-단말기라는 업스트림 자산을 보유한다. 양사의 결합은 국내 우주 밸류체인에서 제조-지상국-데이터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프리미엄을 만드는 구조이며, 중장기 성장 축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1 분기 쇼크, 바닥 확인 구간

2026 년 1 분기 매출은 40.7 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0.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5.6 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매출의 73.9%가 인공위성-부품 개발에서 발생했고 제품 매출 공백이 실적을 늘렸다. 핵심은 1 분기 적자보다 KPS-AIS 양산과 Inmarsat 매출 인식이 하반기 회복을 만들 수 있는지와 향후 수주 전환 확인이 핵심이다.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십억원)	53.6	49.4	58.6	47.8	65.0
영업이익 (십억원)	4.5	10.1	7.3	-4.3	8.0
영업이익률 (%)	8.4	20.4	12.5	-9.0	12.3
순이익 (십억원)	4.1	10.5	10.4	-2.8	7.0
EPS (원)	270	697	691	-184	464
PER (배)	37.2	19.5	18.3	N/A(-69.0)	32.9
PBR (배)	1.7	2.0	1.7	1.7	2.0
ROE (%)	4.9	11.7	10.4	-2.7	6.6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160304